

세계기도정보

[독일] 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18세 이상 1인당 25g까지 보유 허용
 [캐나다] 캐나다 역대급 산불...10년 치 7배 태우고 17만 명 '엑소더스'
 [세계] 지난해 전 세계에 보급된 성서 1억 6,640만 부...전쟁 중인 우크라이네는 50만 부 반포
 [리비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서 군벌 간 무력 충돌...최소 55명 사망
 [미국] 하와이 산불 참사 사망자 106명...지금보다 2-3배 늘 수도
 [미국] 미국 지난해 자살자 4만 9천 명...역대 최다 기록
 [미얀마] 미얀마, 홍수로 6만여 명 이재민 발생...어린이 포함 5명 사망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13명, 구금된 지 10년 만에 석방
 [세계] 전 세계 화장품 생산 위해 착취당하는 취약계층 아동들
 [멕시코] 멕시코 전역에 진행된 마약 교육, 큰 변화를 가져오다
 [중동] 임시 텐트 속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이재민 폭염 피해 우려
 [몰타] 몰타의 탈동성애자, 예수님 영접한 이야기 나눈 후 징역형 위기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경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2023. 08 멕시코에서 온 편지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열린 문 vs 느린 멕시코..

아 프리만 빠르게 진행되는 쿠바와 달리 느리게 진행되는 멕시코 사역을 보며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주신 사명에서 이탈한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있는지 고민된다. 만약 이렇게 쿠바 사역이 진행되면 소꿉로 광장의 꿈의 실현을 내가 볼 수 있을지 고민된다. 그러나 이것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꿈을 완성하실 것이다.

8월 11일 금요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라는 주제로 여성 캠프가 시작되었다. 마초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 아래에 또 문화라는 이름 아래 이곳에서 여성은 언제나 약자다. 약자의 모습으로 억눌려 있는 여성도들이 하나님 아래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진다. 이번 모임은 메인 강사로 아내가 말씀 나눔을 진행했다. 그리고 약 2년에 걸쳐 훈련을 받은 자 중, 젊은 사이라 자매가 캠프의 시작을, 그의 어머니 베티 자매가 적용을 나누며 마지막으로 블랑카 사모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캠프다.

아내는 아직도 본 교회 성도 중 몇몇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멕시코의 가정 폭력은 더 심해졌지만 동시에 가족만이 어려울 때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가정의 폭력은 더 음지로 모습을 숨겼다. 이것은 나눔 시간에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는 목사에게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또 구타를 당했다고 말한다. 목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번 여성 캠프를 통해 여성들이 외친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다!"라는 것이다. 캠프에 참여한 여성들이 메신저 그룹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매일 5가지 감사제목을 메신저 그룹에서 나누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분명 이 일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이 열릴 것이다. 소망!

이해를 구하지 말자!

6 월 21일 수요일, 쿠바의 노라 자매로 부터 연락이 왔다. 남편이 백내장이라 이식할 렌즈를 구하지 못하면 실명을 하게 된다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수시로 사람들은 나에게 자신들이 필요한 약품을 구해달라고 요청한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로 찾아온 환자의 영상을 촬영해 보내오기도 한다. 그러나 난 모두의 필요를 채울 수도 없고 채울 능력도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필요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형제를 감동시키고 그를 통해 필요한 약품을 얻기도 하고 또 얻지 못하기도 한다. 이처럼 누군가의 약은 채워지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약은 구하지 못한다. 이 과정 가운데 나의 마음은 괴롭다. 특히 실명 위기에 있는 형제의 상황은 계속해서 나에게 큰 짐처럼 남아 있다. 백열한명의 목회자 가정을 선정

해서 섬기기로 했다. 몇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명단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모두를 도울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화를 낸다. 나에게 말하면 자신이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 못하는 내가 욕을 들어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지금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향한 비난과 원망은 내가 짊어져야 할 당연한 영광으로 깨닫는다. 이번에 들어가면, 실명되었을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에게 이해를 구하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타까워하는 나의 마음을 통해 그에게 전달되길 기도한다.

하나님의 때!

7월 16일 주일,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 호세 목사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토요일 마약 갱신소 사역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갱신소에 가족을 보낸 가정 중 그리고 갱신소에서 회복되어 나간 사람들 중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일대일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과 이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팬데믹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2년에 걸쳐 본 교회 교인들을 훈련했다. 16명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예비 안수 집사의 명단에 올라있다. 본 교회도 사람이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갱신소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매주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 들어가 16주에 걸쳐 복음을 나누고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이 일을 통해 어떤 변화들이 교회에 있게 될지 그리고 어떤 영혼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될지 기대된다.

순종과 헌신 그리고 지혜!

7월 23일 주일, 교회에서 쿠바 의약품 및 모금에 대해 감사 설교를 했다. 호세 목사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저도 이번에 쿠바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는 8월 26일 나랑 쿠바의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최근 그는 교회 건축을 위해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어 놓았다.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까를로스 와 호세를 위해 쿠바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게 감사하다.

8월 11일 금요일, 여성 리트리트 기간에 블랑카 사모가 자신의 고민을 아내에게 말한다: "사모님, 윤 목사님께서 교회가 있는 곳 근처에 사람들이 굶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직무 유기라 하셨는데, 최근 마약에 중독된 부모가 아이를 계속 보내어 돈을 요구합니다. 울 때마다 아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데, 그것마저 팔아 약을 구입해요. 어찌죠?" 나의 말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이들이 너무 귀하다.

기도제목

1.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쿠바 사역의 입출입과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시길.
2.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백십일 명의 목회자 가정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물질과 기도의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 백십일 교회를 통해 쿠바 교회들이 다시 쿠바를 복음으로 뜨겁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